

## 의료업 종사 근로자들의 감염성 질환 실태조사

- 보건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 은 아  
공동연구원 : 강 성 규, 최 병 순

의료기관 근로자의 감염성 질환 실태와 그 관리체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감염질환을 관리하는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과 기능상의 문제 지점, 의료기관 근로자의 감염질환 이환의 특징 및 현행 법적 기준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수행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3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4개 의료기관에서 총 3,865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의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보건관리직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고,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다 수행하기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물질 관리와 기타 보건관리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건교육의 기회와 의료기관 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 응답자의 94.3%는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병원체 감염 위험이 있는 업무가 있다고 하였고, 30.1%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3년 간 병원체 감염 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 발생 경로는 주사 업무(26.1%), 처치 및 검사(21.1%), 채혈 및 관련 검사(21.9%), 의료행위 후 정리(21.6%), 수술이나 봉합(12.7%),

청소(11.6%) 등이었으며, 주요 발생 질환은 결핵, B형 간염, 인플루엔자, 황색포도상구균, 수두 및 대상포진,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수막염 등으로 이 질환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84.3%는 병원체 감염을 위한 보호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보호구의 종류는 주로 마스크(79.2%)와 장갑(78.2%)이었고, 보호구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보호구를 착용하는 사유로 지적된 업무는 주로 감염성 질환 환자와 관련된 일(17.2%)이었다.

채혈 등 검체 업무(진단 검사를 위한 채액 노출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보호구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4.8%에 불과하여, 혈액성 병원체 노출에 대한 보호구 착용이 미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스크의 미착용 사유는 불편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보호 앞치마나 보안면, 보호안경, 보호의는 비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보호구의 개선과 다양한 종류의 보호구 비치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법적 규정 등은 적절하나, 의료기관들의 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잘 준수하고 있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 보건관리를 위한 인적

구성과 조직, 특수건강진단제도 및 정부의 감시감독 등에 대한 보완요망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현재 보건관리 조직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전문화된 인적자원도 부족하며, 설비 및 장비도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감염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기술적, 법적 지원, 제도적 보완 및 의료기관 근로자의 감염 질환 예

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함께 환자들의 이해를 위한 국민적 홍보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근로자의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 조직 체계 등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